

1996년도 건축사 연수가 지난 4월 22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까지 전국 5천7백여명의 건축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15회에 나누어 치루어졌다.

이에 참가한 건축사 회원은, 사회계층으로 보아, 건축분야의 선도적 지도층이며, 특히 건축설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누구도 대역을 할 수 없는 사회의 주인공이다.

여기에 연수교육이 제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건축사 연수의 미래상

The Future of Architect's Study and Training

원정수 / 인하대 건축과 교수  
by Won Chung-Soo

건축사 보수교육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회원 모두에게 실시되도록 규정상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축사 자격이란 건축설계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국가에서 공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므로 그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단순한 전문적 전공문제의 함량 미달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이 되기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건축사 스스로 성장·발전되어지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방법과 형식은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회원 상호간의 활동상과 자료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거나, 또는 건축과 관련지어지는 여러상황의 변화에 따라 건축적 대응을 위한 정보전달을 위해 모이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대생활의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성인 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서, 각종 기업 또는 사회단체, 조직의 협동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계획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되는 군사적 훈련 방식도 있다.

이번 연수교육에 참석하는 방식은 의무조건이 엄격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부실공사로 발생되는 건물 붕괴사건, 건설 부조리에 관한 사건들로 인해서 건축계를 보는 사회 시각들의 불신평조의 골이 깊어진데 대한 영향으로 오는 화살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한다.

본래 교육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보는 가치는 보람찬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으로 보는 가치는 밝은 희망을 보장받는 미래를 위해서 온 국민이 협력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교육에 참여하는데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교육이 있다.

즉,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벌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강제로 강요를 받는 형식의 교육도 있다.

따라서 평소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에서도 심리적 해석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피교육자 개개인의 상황과 심리적 시각차이에서 상반되는 교육성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훌륭한 교육과 만족한 교육성과를 위해서 연구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본 연수교육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회원 모두가 이를 정리하여 다음 기회가 되는 연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생각하여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제도의 사회는 다양한 전문분야가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을 자치 분담하는 유기적 종합으로 최대의 장점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정치제도에서도 민선으로 위임받는 지방 자치제도가 시민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

선진국의 한 사례에서 보면 건축행정의 모든 사항을 건축계가 담당하여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건축계가 가야할 미래의 방향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다.

국토개발, 도시발전계획 수립으로부터 건축허가, 심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건축사 스스로 도맡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하여 본다.

지금 상황에서 건축행정의 역할을 건축사 자치능력으로 수행하겠다면 마치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으로 생각할 것이 뻔하다.

미국 시카고의 초고층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평가와 판단을 우선하여 기존 법규 또는 시행, 규정 등이 새롭게 보완되며 발전된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의 건축계에서 그대로 적용시행한다면 공명하고 올바르게 건축계 자치력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까 생각하여 본다. 언젠가는!

이러한 목표와 주제를 중심으로하여 회원간의 의견교류와 토론이 쌓이면 우리의 잠재력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상호인식하는 행위와 과정이 연수교육의 기회와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축사 처벌 규정이 가혹하게 강화되어간다고 한다.

건축주, 시공자의 고질적 의식구조와 경제적 사회구조의 병폐로 발생하는 원인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에는 손댈 엄두도 않고 손쉬운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건축사가 도맡아 처벌을 받는 것은, 마치 주차장 절대 부족의 전국적 현실에서 주차장 건설대책을 피하고 주차단속만을 강화하는 것과 같다 생각이다.

이 기회에 건축사 스스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건축 행정내용과 건축기술 발전 홍보를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일반시민, 건축주들에게 계몽교육을 펼치면서 건축사 보호 자구책을 갖도록 생각하여 본다.

이 기회에 건축사협회를 주축으로한 건축정보통신망을 계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정보고속화가 촉진되면, 설계공통정보자료는 모두가 공유하여 편의를 도모하여, 물리적 생산에 소모하는 시간을 창작적 차원에 몰두하는 시간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하여 높은 차원의 건축문화를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에서도 선도적 국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창작과정의 경험정보를 공개하는 모임을 갖고 서로 대화를 갖는 것이 다음의 연수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앞으로 연수교육장은 서로 참여하고 기다려지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